‘포교 거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상량

8월 22일 상량식 봉행
우송 스님 상량문 봉독
“수행 · 문화 거점 도량”
10월 20일 준공 예정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는 오는 10월 복합문화센터 완공을 앞두고 8월 22일 상량식을 봉행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오는 10월 복합문화센터 완공을 앞두고 8월 22일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 전 주지 지운 스님,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묵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정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은 스님(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향림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상량문에서 복합문화센터인 ‘하마장(下馬莊)’에 대해 “하마장은 예로부터 중요한 전각에 들어서기 전, 말에서 내려 몸가짐을 가다듬고 경건히 임하는 곳”이라고 설명한 뒤 “하늘이 가깝고 산이 크다, 하마장에 말 내려 숨을 고른다”라는 게송을 통해 도량의 위엄과 불법의 청정을 설했다.

우송 스님은 상량문 낭독 후 이번 불사에 원력을 모은 대중과 시공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수행·문화·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량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상량문이 봉합된 종도리를 올리고 고정하며 도량의 안녕과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근역성보관과 미술관에 이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수덕사는 법회·전시·교육·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종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수덕사 복합문화센터는 경내 근역성보관 인근에 조성되고 있으며, 2024년 8월 26일 착공해 오는 10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백양사, 장학금-팥빙수로 지역상생 실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가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나누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에 한발 더 다가섰다.

백양사는 8월 26일 장성 북부지역 유일한 중학교인 백암중학교(교장 박경아)를 찾아 장학금 200만원과 정성껏 만든 팥빙수 130인분을 선물했다.〈사진〉 이어 북이초등학교와 약수초등학교에도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8월 26일, 백암중 등에 장학금 400만원
학교-관공서 등에 팥빙수 500인분 나눔

또 인근 관공서와 기관에서 370인분의 팥빙수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는 데 힘을 보탰다.

백암중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무공 스님을 비롯해 수좌 일수 스님, 성보박물관장 동참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과 박경아 교장이 함께했다.

이어진 팥빙수 나눔에는 백양사 스님과 백양사불교대학 학생, 신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팥빙수를 만들어 전달했다. 팥빙수에는 망고와 블루베리, 견과류, 시리얼 등 13가지 토핑이 풍성하게 얹어져 학생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특히 백암중학교는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 이름을 따 만든 학교이니 만큼,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장성 관내 모든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장학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아 교장은 “함께하는 배움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게 우리 학교 목표”라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백양사와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팥빙수를 받은 백암중 1학년 김태현 군은 “팥빙수가 생각보다 크고 맛있다”며 “뜻밖에 학교에서 간식을 먹게 돼 행복하다. 토핑이 많고 양이 풍부해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한편, 이날 백양사는 백암중학교와 북이·약수초등학교를 비롯해 백양사농협, 북이파출소, 북이면·북하면사무소, 예비군중대, 약수·사가우체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역 기관에서 팥빙수 500인분을 전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괴태곶 봉수대-수도사지 개방·조사를”

8월 25일 해군2함대 사령부지서 현장 답사

적문 스님·주민 40명 참여
오는 10월 16일 학술대회



적문 스님 등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40여 명은 평택 괴태곶 봉수대와 수도사지를 답사했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지 내의 괴태곶 봉수대와 수도사지 현장을 답사하고 조속한 유적지 개방과 조사를 촉구했다.

적문 스님(평택 수도사 주지)과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서영일 한백문화유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과 문형철 원효호암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40여 명은 8월 25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지 내의 괴태곶 봉수대와 수도사지를 답사했다.〈사진〉 이번 답사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협조와 허가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괴태곶 봉수대를 둘러본 후 과거 국내 최대 규모의 봉수대임에도 철조망 설치와 지형 변경으로 원래 모습이 훼손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부지 안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수도사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위치를 특정했다.

서영일 원장은 “오랫동안 수도사지를 특정하고 주변을 살펴본 결과 유적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발굴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또한 “봉수대와 수도사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군 시설과 개발 과정에서 원형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적문 스님은 “이번 답사를 통해 수도사지가 역사와 불교문화가 깃든 소중한 성지임을 확인했다”며 “오랜 세월 방치되며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 이제는 시민과 함께 보존과 발굴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적이 정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사는 오는 10월 16일 학술대회를 열어 수도사지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검토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인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8월 22일 대적광전 일원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8월 22일 대적광전과 경내에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 7월 5일 입재 후 이어온 49일간의 간절한 기도 정진이 이날 원만히 마무리됐다.

회향 법회는 염불원장 광해 스님을 비롯해 노전 유초 스님,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집전으로 상단예불과 시식, 봉송게, 소전 의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주지 혜일 스님은 회향사에서 “49일 동안 정성껏 예수재를 모신 인연 공덕으로 성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믿는다”며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불교문화공간 ‘빨간 목탁’ 오픈

편의시설 개보수…‘폴바셋 선운사점’도 오픈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8월 22일 경내 편의시설을 새단장해 불교문화공간 카페 ‘빨간 목탁’〈사진〉을 오픈했다.

카페 ‘빨간 목탁’은 템플스테이관 앞 산책로 앞 편의시설을 전면 개보수한 공간으로 찻잔, 쟁반, 접시 등 다양한 생활도자기를 전시·판매하는 공간이다. 대표 상품인 ‘빨간 목탁’은 2022년 불교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특허까지 출원한 도자 목탁이다.

주지 경우 스님은 “기존의 편의시설이 불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롭게 정비해 불교문화공간으로 바꾸게 됐다” 며 “탐방객과 신도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빨간 목탁’을 사찰 신도와 참배객들이 차를 마시며 불교 공



예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복합 불교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찬원 선운사총신도회장은 “사찰을 상징하는 기념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운사에서 특허 받은 ‘빨간 목탁’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을 선보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선운사와 도솔산을 찾은 사람들이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8월 22일 일주문 앞 편의시설을 개보수해 카페 ‘폴바셋 고창 선운사점’을 오픈했다. ’폴바셋‘은 매일유업 자회사인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로, 사찰 경내지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을사년 생전예수재 회향

8월 22일 대웅보전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생전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써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며 지난 7월 5일 입재한 49일간의 생전예수재 기도를 8월 22일 회향했다.〈사진〉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군산 동국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경우 스님은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일화불교영화제, 사성암서 개막

9월 20일까지 전국서 진행



2025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이하 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23일 구례 사성암(주지 우경 스님)에서 막을 올렸다.〈사진〉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사성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전 인류의 삶에 고르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성암에서 열린 개막행사에서는 화엄사에서 준비한 비건 햄버거가 제공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가수 하림이 무대에 올라 노을이 물든 사성암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성암 주지 우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성암에서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의 첫 시작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영화제를 통해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상영작으로는 영화 ‘총을 든 스님’이 관객에 선보였다. 관객들은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사찰의 풍광과 어울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열반 3주기 월탄 대종사 부도탑 제막

8월 27일 다례재 및 제막식



미룡당 월탄 대종사의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이 8월 27일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다.〈사진〉

법회에는 수덕사 전 방장 설정 스님,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문도대표 성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송으로 시작해 설정 스님의 상단 축원으로 이어졌다. 설정 스님은 “선망부모와 무량한 영령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성불하기를 바란다” 며 “법계의 모든 중생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복덕을 성취해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앞으로 매년 음력 7월 초닷새를 기일로 정례다례재를 봉행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기리겠다”고 인사했다.

부도탑 제막식은 속리산 법주사, 청주 용화사, 단양 대흥사에서 동시 봉행됐다. 비문은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이 집필했고, 글씨는 최병익 선생이 맡았다. 부도는 고 김옥수 명장과 정이권 선생이 조성했다. 대종사의 진영은 김진성 선생이 맡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정관암, 어르신들에 음식 공양

8월 26일 백중 맞아 진행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은 8월 26일 백중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관암은 8월 26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460명)과 남구노인복지관(280명)에서 총 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사진〉

대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무주상보시 실천”이라며 “종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속에서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